



GP USA : 미주본부 : Global Partners, 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SA ☎ 714.774.9191  
윤재관, 헤미 email: jekwanyoon@gmail.com / haemiyoonyoon2001@gmail.com

튀니지에서 튀니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안식년을 마쳤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의 기간을 안식년으로 잡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식년을 그냥 사역지에서 보냈습니다. 떠날 상황은 안되고 심은 필요하고... 저희가 결정한 것은 튀니지에서 최소한의 일을 하며 지난 20년의 사역의 시간을 돌아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쉬었는지, 충분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는지, 제대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고민하였는지~~ 사실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안식년을 지나는 일년동안 사역지에서 머물러 있었기에 사역에서 그리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기간동안 마음의 부담과 부족함의 죄책감에서는 많이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년이 끝나는 지금 오히려 안식년의 템포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엄청 많은 일을 할 것처럼 부담으로 조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순종의 한걸음을 걷는 것.

어쩌면 안식년을 지나면서 얻은 지혜라기 보다는 중동지역에서 사역자로 2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도달한 생존을 위한 기본 자세일겁니다.^^

**동시에 새로운 다짐과 방향성을 고민합니다.**

2004년에 GP 단체에 들어와서 올해로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이도 5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은퇴하게 될지 알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지만 최소한 앞으로의 사역의

많은 요소들이 지금까지와의 모습과 같을 수 만은 없을 것 같고 같아서도 안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편으로 포기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또한 안식년 동안의 고민의 일부(?)였고요^^

**공동체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튀니지에서 튀니지로 돌아왔지만 공동체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면서 내린 결정은 이전의 공동체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심의 공동체 모임을 다시 모으지 않고 이번부터는 기존 현지 공동체에 일원으로 생활하려 합니다. 물론 저희의 의지를 넘어서서 일하심이 있다면 순종을 하겠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는 않을겁니다.

대부분 가정교회로 모이는 튀니지 신앙 공동체지만 그나마 조금 규모가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존 현지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같은 자리에서 세워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쪽 이어갑니다.~~**

안식년을 지나며 비즈니스에서도 최소한의 관여만 하려 노력했고 나름 함께하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리매김을 잘 해 주었습니다. 안식년 이후에 몇가지 구상을 하는 일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충실한 직원들로 인해서 지금 하는 일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구상하는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모든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임을 잊지 않으며 함께 하는 직원들의  
총체적인 성장을 (그리고 우리의 총체적인 성숙을) 향해 느슨해진 끈을  
다시 다잡아야 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튀니지에서 튀니지로 돌아왔지만 그 기간을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늘 사랑에 빚진 자들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다시 뛰어야 하는 새로운 시작점 앞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며 살아가길 다짐해 봅니다.

2026 년 3 월에 튀니지에서~~~

#### **P.S. 기도책자**

튀니지의 몇몇 사역자들이 이곳의 기도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나눕니다. 하루에 한 내용식 보시고 이곳을 이해하고 함께 손 올려  
주세요.^^